

▷ 불교계 영탑·납골당 현황

시설자	시설종류	운영현황	연락처
한마음선원 금양지원	영탑공원	분양중	(0446)877-5000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영탑공원	분양중	(0591)746-8153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영탑공원	분양중	(094)21-4662
한마음선원 마산지원	영탑공원	추진중	(0581)42-6638
예산 수덕사	탑림공원	추진중	(0458)37-6565
장성 백양사	영탑공원·납골당	납골당 준공	(0685)92-7502
서울 삼보사	영탑공원	분양중	(02)352-6406
시흥 영각사	납골 묘지	11월 준공	(0345)496-7700
태고종공제회 월성사	영탑·납골묘	분양중	(02)739-4641
동국대	영탑공원	99년 착공	(02)290-3114
순천 선암사	납골당	추진중	(0661)54-5347
영천 만불사	부도탑묘	분양중	(0565)35-0101
석왕사 황성극락전	장례식장·납골당	분양중	(032)6673-404
보현원 양평공원	납골묘지	99년 6월 준공	(02)738-4555
음성 고심사	영탑공원	분양중	(02)701-6456
고양 장안사	납골당	공사중	(0344)965-4222
상학원 영묘전	납골당	분양중	(0346)941-3416
조동종 천지종사	영탑공원	공사중	(032)933-8820
연천 오봉정사	납골당	11월 준공	(0355)34-2140
가평 도솔정사	납골당	추진중	(0356)82-6189
포천 다보정사	영탑공원	분양 예정	(02)640-7601
태고종 보현정사	납골당	추진중	(02)909-2550
말양 부은사	납골당	분양중	(0527)356-0770
말양 천불사	납골당	분양중	(0525)353-0408



▷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한마음선원 금양지원 영탑공원의 전경. 일제 잔재인 한마음에 들고 난다는 뜻에 따라 불이 아닌 조상님들의 혼백을 한마음에 귀일(歸一)케 하여 조상과 자손 모두 한마음 안에서 평안하게 하는 원리를 담고 있다.



▷ 11월 완공 예정인 시흥 영각사 지하 납골당 모습.

불교장묘제 계승 - 매장문화 개선 - 환경보호

“묘지대신 납골시설에 조상모시자”

우리는 매년 명절이면 수 백리 길을 달려가 하루종일 및 근대 성묘를 다니다. 조상을 생각하고 공덕을 기리는 아름다운 모습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급속도로 변해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이러한 미풍양속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할 때다. 오랜 매장 풍습으로 인구밀도가 세계 수위인 좁은 땅에서 매년 여의도 넓이만한 땅(약 2백50만평)이 묘지화되고 있다. 묘지값이 폭등하고 영달아 장례비용마저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계층의 호화분묘, 무연고 분묘의 증가 등도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10여년전부터 본격화 된 불교계의 영탑(납골당)과 납골묘, 납골묘 등 납골시설은 이런 점에서 장묘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성공적인 사례로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영탑공원이 꼽힌다. 1986년 한마음선원장 대령스님이 충북 음성군 금양읍 한마음선원 경내에 처음으로 조성한 국내 최초의 가족 탑골원이자, 부도탑(浮屠塔)을 현대화한 이 영탑공원은 불교계 내외에서 장례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적합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주민들도 영묘시설로 간주하지 않고 학교·가족의 소중장소로 애용하고 있을 정도. 한 탑에 3대까지의 영가를 모실 수 있으나, 그 이전 대(代)의 사망시 제일 뒷대는 꺼내어 소(燒)하고 그 다음 대부터 다시 3대까지 모시는 방법으로 영구히 사용할 수 있다.

4만여평의 대지에 8백여기의 영탑이 조성된 금양지원을 비롯 한마음선원 진주·제주 지원에도 각각 1백여기의 영탑이 들어서고 있으며 마산지원도 영탑공원을 추진하고 있다.

한마음선원의 성공사례는 불교계에 영탑공원 조성 붐을 일으키고 있다. 1만여평의 공인 부지에 1천기의 부도탑을 조성중인 영천 만불사의 부도탑묘, 1백여기의 영탑이 들어선 음성 고심사 영탑원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년전부터 영탑공원을 조성해 온 서울 삼보사와 포천 다보정사를 비롯 조계종 교구본사인 백양사·수덕사와 태고종공제회 월성사, 동국대, 조동종 천지종사 등이 영탑공원 조성을 추진중에 있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수덕사의 탑림공원. 최근 수덕사와 총남도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탑림공원 계획은 덕산도립공원내 사찰 임야에 나무들과 조화를 이룬 50여종의 크고 작은 다양한 부도탑과 지장보살상(약 20m 높이)을 건설(청약자가 경제적 능력에 맞게 선택), 탑공원을 결합 자연공원을 산출한다는 것. 수덕사의 문화유적 관광과 상징함, 온천관광, 성묘 등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문화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예산군 덕산면 덕승산 일대 3만9천여평에 들어서는 이 탑림공원이 성공적으로 화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사찰이 연계한 새로운 유형의 납골시설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수



▷ 보현원 양평공원의 '납골묘' 모습.

덕사 주지 법장스님은 “탑림을 조성하는 것은 불교의 전통적인 장례법인 부도탑의 현대적인 계승”이라면서 “진풍속문화를 계승하면서도 매장문화를 개선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거삼득(一舉三得)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국대와 백양사의 영탑공원은 규모면에서 관심을 끈다. 동국대는 경기도 양평에 부지 50만평을 확보하고 국내 최대의 가족 영탑공원을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영탑 20여만기를 수용, 도지 4백여만 기의 대체효과를 장담하고 있다.

한편 납골당 및 납골묘원도 여러 곳에서 운

영중이거나 조성중에 있다.

경기도 시흥시 영각사는 사찰 지하터 4만2천평에 최대 2만5천기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을 11월경 완공할 예정이다. 주지 법장스님은 수년간 일본 등 선진국의 납골당을 분석, 지하에 땅은 영혼 밤·난방 시설을 갖춘 현대적 개념의 묘지를 만들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난 86년 문을 연 최초의 납골당인 상학원 영묘전을 비롯 10여곳의 납골시설이 조성중이다. 1백여기 이하의 납골을 안치한 소규모 납골당도 말양 부은사 등 10여곳에 달한다.

매장묘가 점유중인 땅은 남한 총면적의 1%에 달하는 9백82만평(95년말 현재). 분묘 한 기당 평균 면적은 94년 기준으로 약 13평(42.5평방m)에 달해 국민 한 사람당 주택 면적(4.3평)의 3배나 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기존의 묘지를 영묘공원으로 재개발할 경우 기존 묘지 면적의 10분의 1 정도면 모두 수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불교계를 중심으로 화장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숭고하고 엄숙한 탑묘의 형태가 전통과 조화를 갖추어 세워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교교리적 의미가 가미된 전통적 부도형 조형방식이 선호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매장관습 탈피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장방형분묘의 형태에 유골을 상당수 안치하는 납골묘 조성방식이 있다. 각 지역사찰을 중심으로 영묘와 납골당이 설치된다면 신령의 대물림에도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므로 사찰주변의 유휴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김재경 기자(jkim@buddhapia.com)



▷ 석총산업이 좁은 면적을 활용해 조성할 수 있도록 고안한 65실 규모의 단층탑형영묘. 경주 원림사에 세워졌다.

한마음선원, 전국 4곳에 영탑공원 조성 수덕사, 지자체와 연계 탑림공원 추진 시흥 영각사 지하납골당 11월경 완공

개선돼야 할 장묘제 범규 경내지 납골시설 규제완화 해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8일 종교기관의 납골시설 설치의 '신고제' 등을 담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현재까지 개정법률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 등 장묘제 관련법규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어 올 하반기 중에는 납골시설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 사회·공익단체가 묘지 설치의 주체(사설묘지관련 시설의 설치주체를 재단법인, 종교, 문중 또는 자연인으로 한정)가 될 수 있도록 한 각종 인·허가사항을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종교시설의 경내지나 지하에 묘지나 납골당 등을 갖추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 매장과 화장에 대한 법적 차이가 없는

것도 문제다. 특히 형법 범규에 따르면 법적인 납골시설로는 납골묘원을 규정하고 있어 다른 납골시설(납골당, 납골묘)은 묘지시설로 해석, 납골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묘지시설에 준하는 각종 규제를 동일하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영묘를 납골시설로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북지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주는 방법도 가능).

■ 경내지의 납골당이 효과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장단 납골시설의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의 간소화 △납골시설 설치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부분의 적극 도입 △납골공원의 설치·입지 기준과 일반 묘지와 구분 △장단납골시설에 대한 사용자 최고 한도액 고시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수덕사가 총남도와 함께 덕산도립공원내에 추진중인 '탑림공원' 조감도.